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5호 【루계 제24993호】 주체104(2015)년 8월 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1950년대처럼 군민대단결로 만난을 뚫고 기적을 창조하자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군중대회 진행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에 호응하는 군중대회들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군중대회가 2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7. 27행진곡》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박태성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장강훈,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오문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수의축산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김금남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긴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토론자들은 전화의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이어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금수산태양궁전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결사관철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를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 언제나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고 전력과 석탄, 화학비료, 세멘트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증산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자각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전세대들의 투쟁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감으로써 영웅조선의 새로운 승리신화를 앞장에서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황해북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박태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지배인 서인옥,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사리원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선광,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지성남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로병들의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고결한 조국수호정신을 본받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길높이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운 당의 뜻을 깊이 새기고 로병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하루하루의 농사일을 원쑤격멸의 싸움과 같이 전투적으로 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청년영웅이 되며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전화의 대학생들처럼 학습열풍, 과학탐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첨단돌파로 조국번영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능한 청년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김재룡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강계제1사범대학 학생 박성철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위업도, 강성국가건설위업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억척의 신념을 심장에 쪼아박고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안의 로동계급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적기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한 전세대의 육탄정신, 사생결단의 투지로 질좋은 제품들을 팡팡 생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견인불발의 의지로 탄광들과 발전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통음을 세차게 울려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종자혁명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쌀로써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전투장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용맹과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설레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원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원산화학공장 지배인 황홍영,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산시농근맹위원회 위원장 조영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동광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1950년대 화선용사들의 호소는 도안의 인민들의 가슴속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고 하면서 전세대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강원땅에 사회주의락원을 훌륭히 일떠세운 전승세대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하여 원산군민발전소와 원산초등학원, 중등학원 등을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원산화학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화의 로동계급처럼 사생결단의 투지로 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법동농민이 간직하였던 불변의 수령관을 지니고 이악하게 일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며 축산물과 남새, 과일을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분계연선지대에서 사는 인민답게 원군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만단의 전민항전준비를 갖춤으로써 강원땅을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답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에 새기고 온 도를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며 어디 가나 청춘의 기상과 위훈이 나래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리상원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직맹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혜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최경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값높은 실천적성과로 대답해온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자랑안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와 일터를 불타는 락동강전선으로, 1211고지로 생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기며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홍단군, 백암군, 삼지연군 등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강양모 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랑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작업반장 리농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포수산대학 학생 강성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준엄한 년대들에 빛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긴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영웅서사시, 선군조선의 새로운 승리신화를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시안의 로동계급이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농장 농업근로자들은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 27을 안아오자는 로병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것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전화의 나날 원쑤들의 맹폭격속에서 2중3중의 방탄벽이 되여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친위중대원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빛내여주신 백승의 력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력사로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 자 강 도 에 서 —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철탑세우기 결속, 전선늘이기 50%계선 돌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송전선공사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삼지연송전선공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발전소건설과 동시에 송전선공사를 추진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한탄도 못되는 사이에 1호발전소로부터 삼지연읍까지의 수십㎞에 달하는 구간에서 철탑세우기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동시에 이 구간에서의 피뢰선늘이기가 전부 끝나고 함경남도송배전부가 맡은 20㎞구간에서 전선늘이기가 결속된것을 비롯하여 전선늘이기작업은 50%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이곳 백두대지의 송전선공사를 하루빨리 결속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성적인 힘을 집중하여 공사를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송전선공사장에 전투좌지를 정한 성의 책임일군은 8월 중순까지 공사를 결속하고 송전을 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옥천과 무봉 등지의 전투장들을 오가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기적창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도당과 시, 군당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방조속에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달려나온 수백명에 달하는 각 시, 군의 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7월초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여 보름 남짓한 기간에 철탑세우기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온덕지구의 송전선공사를 맡은 금야군, 덕성군, 정평군, 함주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정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난 7월 29일까지 전선늘이기를 제일먼저 끝내였다. 신흥군, 영광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계곡이 많은 남달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개척지구의 전선늘이기과제를 제기일내에 결속하였다. 북청군, 허천군송배전소와 홍남지구송배전소의 로동자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결사관철의 함성높이 맡은 20㎞구간에서의 철탑세우기와 전선늘이기를 제일먼저 결속한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금 1호발전소—2호발전소송전선공사에서 다시한번 본때를 보일 충천한 기세에 넘쳐있다.

함경북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개척—무봉송전선공사에서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이곳 송배전부의 일군들은 전반적인 공사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각 시, 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의 송전선공사에 참가한 영예를 안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지난 7월 25일까지 도가 맡은 구간에서 철탑세우기를 빛나게 결속한데 이어 짧은 기간에 피뢰선늘이기를 끝내고 전선늘이기과제도 70%이상 해제꼈다.

량강도의 송배전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무봉—삼지연읍송전선공사를 맡은 여러 시, 군송배전소들의 로동자들은 매일 구체적인 목표밑에 구간별로 철탑세우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전승절을 맞으며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였다. 1호발전소지구의 송전선공사를 맡은 백암군, 운흥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경사가 급한 지대적특성에 맞는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철탑조립속도를 높이였다. 도송배전부일군들의 통일적인 지휘와 작전밑에 지금 각 시, 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전선늘이기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수㎞구간씩 완성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로반과 철다리, 차굴공사 힘있게 추진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40여일동안에 숙소들을 전개하고 100여㎞의 공사도로를 건설하였으며 많은 량의 통나무와 흔석을 마련한데 이어 로반, 철다리, 차굴도갱굴진, 소구조물기초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를 정상적으로 벌리 조직하자면 교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삼지연지구철길건설돌격대 현장지휘부에서는 철길건설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일념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날마다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각 려단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온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모든 려단의 지휘관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실천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돌격대원들이 건설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1만 5천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1 350여㎥의 막돌을 운반하여 철길로반다짐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려단이 맡은 소구조물과 다리기초콩크리트치기를 전부 끝내고 7월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평양시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기며 화산재가 덮인 지대의 토량을 전부 들어내고 먼거리에서 돌과 진흙을 날라다 다짐을 하면서 로반형성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려단과 북부철길청년돌격대에서는 기계화수단을 총동원하여 방대한 토량을 파제끼면서 로반공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이 차굴건설을 위한 도갱굴진에서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간삼봉1차굴을 맡은 대대와 중대들에서는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도갱굴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암질조건이 나쁜 불리한 속에서도 난관을 타개해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아내여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함경북도, 황해북도려단들에서도 차굴공사에 진입하여 전투실적을 올리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남포시려단에서는 대상공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공사용전기보장을 위하여 일부 력량으로 포태지구 발전소들의 보수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철길건설돌격대에서는 수십정보의 남새생산기지를 조성하여 돌격대원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유서깊은 삼지연군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대지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의하여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새 조선건설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2월

평양학원 교직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2월

강동군 삼등면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10월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4월

애국미헌납운동에서 첫 봉화를 올린 모범농민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8(1949)년 4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1돐을 맞으며 각 도 녀성대표들이 올린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7월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10월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5월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준공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10월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8월2일로작발표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41돐기의 년륜이 새겨졌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력사적인 그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에 넘치신 음성이 울려오는것만 같다.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를 세우는것이라는것을 명시하시고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억척불변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였다.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는것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된 강위력한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철통같이 묶어세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며 천만군민의 고결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때이다.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도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은 우리 혁명실천이 확증한 철의 진리이다.

돌이켜보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경제, 문화건설에서는 눈부신 비약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이 창조된 위대한 나날들은 이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한 문수물놀이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한다는 배짱과 의지를 안고 세계적수준의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한 《마식령속도》창조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마음껏 먹이시려는 원수님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황금해의 새 력사창조의 앞장에 선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 당에서 준 과업을 열백밤을 패가며 제기일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집행해낸 모란봉악단의 창조성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을 전사의 량심과 의리로 체질화한 군대와 인민만이 바로 이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천지윤활유공장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같이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공장들과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의 책임일군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다. 뼈를 깎아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고야말겠다는 결사의 의지와 각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헌신적일본새와 창조적기풍이다.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의 피로 새길 때, 결사의 의지로 실천할 때 세계적인 변혁과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그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처럼 《오직》, 《어떤 역경속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데서 육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만 숨쉬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백옥같은 량심과 의리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전당이 군중속으로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당일군들이 기발처럼 들고나가는것이 있다.

전당이 군중속으로!

짤막한 이 글발에 우리 당일군들이 한생토록 간직하고 구현해야 할 고귀한 지침이 새겨져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에는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이런 숭고한 뜻을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 같으신 위인은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전당이 군중속으로!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령도하시며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당사업원칙이며 정치신조이다. 바로 여기에 남들이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체계가 확립되고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어느덧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격동적인 그때를 잊지 못하고있다.

군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군중이 각성되고 발동되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는 철리를 밝히신데 기초하여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사람과의 사업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전당이 군중속으로 들어갈데 대한 가르치심에는 우리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을 생활화하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언제인가 새로 꾸린 3대혁명전시관에서 어느 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보여주는 사판과 전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아래에 경제선동하러 내려갈 때 배낭을 메고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심하면서 중요하게 의도하였고 여러차례 강조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일군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인민적인 풍모를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있다.

모든 당세포들을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는 혈맥으로, 일심단결의 성새를 받드는 성돌로 만들자.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의 확고한 의지이고 각오이다.

각지 당조직의 당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을 심심산골에 있어도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혈맥을 잇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참된 동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용약 뛰여들어 위훈을 창조하는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대중적지반이며 우리 당이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영원한 동행자이다.

전당의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군중관을 투쟁의 지침, 삶의 거울로 삼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위력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없다. 하기에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경제건설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8월2일로작에서 우리의 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할데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바로하고 모든 일군들이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주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사상전의 거세찬 물길속에서 일군들속에 남아있던 낡은 사상들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모든 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새로운 시대속도들이 창조되여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락원거리와 창광거리, 문수거리와 광복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오늘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창조의 열풍속에 이룩되고있는 기적과 위훈도, 순천과 덕천지구의 탄전들과 무산, 대안, 홍남에서 이룩되는 생산성과도 당조직들에서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는 조직정치사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지난 수십년간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으며 그 위력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심화시켜 이 땅우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로작학습에 큰 힘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신 41돐을 계기로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로작학습을 심화시키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열정적인 로작학습을 통하여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이야말로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금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로작학습을 심화시키고있다.

로작학습열풍은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세차게 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도당일군들부터가 자자구구 따져가며 학습한데 기초하여 아래단위 당조직들에서 로작학습에 큰 힘을 넣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리원시당위원회 일군들이 로작학습에서 앞장서고있다.

시당일군들은 문답의 방법으로 로작학습을 심화시키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 평안남도당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학습에 큰 힘을 넣어 모든 당일군들이 우리 당건설에 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수필 당세포, 그 부름을 되새기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은 세포의 강화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생활에서는 때로 범상하게 여기던 말을 두고 깊이 음미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줄기세포연구소에 대한 취재길에서도 나는 그런 체험을 하였다.

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높이 세운 결의목표수행에서 연구소가 이룩한 많은 성과를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당세포비서 림영희동무는 뜻깊은 올해에 당세포의 위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작은 세포가 유기체의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의 말단기층조직을 당세포라고 이름지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세포!

귀에 익도록 듣고 자주 외워온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안겨오며 나의 가슴을 쳤다.

조선로동당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있어서 당세포는 너무도 작다. 바다를 이루는 샘줄기와도 같은, 무성한 거목의 하나의 잎새와도 같은것이 바로 당세포이다.

《당원들은 모이시오.》하면 빙 둘러앉는 사람들, 그들은 기대앞에서 함께 기름내를 맡고 한포전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늘 머리를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다. 당정책관철에로 호소하는 당세포비서며 그에 남먼저 호응해나서는 머리희슥한 로당원이 있는 곳, 당결정서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기는 신입당원의 흥분된 얼굴이 보이고 도란도란 녀당원의 정깊은 목소리가 울리는 곳이 바로 당세포가 아니던가.

사업과 생활속에서 뗄수 없는 한덩어리가 된 사람들, 둘러보면 한눈에 안겨드는 너무도 작은 당세포이다.

그러나 그 소박한 사람들이 엄숙히 손을 들어 채택한 당세포결정서는 얼마나 비상한 무게를 가지는것이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이 발휘하는 희생정신은 또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문득 락원의 10명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이켜졌다.

당 세포 총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10명 당원들, 불과 두손에 꼽힐 많지 않은 그 당원들이 발휘한 고귀한 정신력과 위훈은 력사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렇다. 당세포는 크지 않아도 그 힘은 대단하다. 당과 수령의 호소에 누구보다 먼저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며 대중을 선도하고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원들의 집단이기에 작아도 결코 작게만 볼수 없는 당세포이다.

당정책관철의 척후대!

당세포의 위력이 응축된 이 말을 새겨볼수록 우리의 당세포들을 쇠소리나는 전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로고가 가슴에 뜨겁게 미쳐왔다.

몸소 금속공업성 흑색금속공업관리국 당분세포(당시)에서 당생활을 하시며 당분세포총회에도 참석하시여 세포사업을 지도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엄혹했던 1990년대에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를 당세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며 전당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전투력있는 당세포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해주시며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북방의 한끝에도 당세포사업을 지도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고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당세포비서의 가슴속에도 언제나 자막대기로 안고 사는 고귀한 지침이 있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위대한 스승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심장을 끝없이 울려주고있으니 정녕 당세포의 거대한 힘은 절세위인들께서 주신것이다.

활력있게 살아숨쉬는 수천수만의 당세포들로 이루어졌기에 조선로동당이라는 생명체가 그렇듯 약동하는것이고 위력한 당세포들이 성돌이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굳건한 성벽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당이 그토록 강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백두의 혁명전통을 총대로 굳건히 이어가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 삼지연에서 출발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할 인민군장병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로 나뉘여 판문점을 향해 달리게 된다.

2일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출발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 백두산공격정신, 붉은기정신이 꽉 들어찬 혁명군대로 만들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모임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항일대전의 군복차림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입장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리창길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군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력사의 땅 삼지연에서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판문점 붉은기이어달리기 출발모임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에 진행되는 붉은기이어달리기는 모든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기어이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떨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주체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애, 전투적인 학습기풍과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붉은기이어달리기과정에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고 청춘의 기백과 열정, 패기를 안고 모든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인민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목숨바쳐 보위하는 열렬한 애국자,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백두산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그어주신 화살표를 따라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친 력사의 땅 판문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떨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글발을 새긴 붉은기발이 대오에 수여되고 붉은기이어달리기 출발이 선포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노래선률이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목적지를 향하여 기운차게 달리였다.

삼지연군안의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수호전과 반미대결전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을 환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에서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침수지우회도로와 련결하는 다리를 건설함데 대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였다. 건설현장에 도착한 전투원들은 즉시 지휘부천막과 림시숙소들을 전개하였다.

다음날부터 려단은 공사에 진입하였다.

지휘관들은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변압기설치, 전기선공사와 함께 숙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실어들이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려단의 전투원들은 블로크 한장없는 조건에서 강바닥에 흔한 막돌을 실어다가 벽체를 쌓으며 보름동안에 구장청년역에 세멘트창고를 건설한데 이어 다리건설현장에도 1천t능력의 세멘트창고를 훌륭하게 건설해놓았다.

려단에서는 돌격전을 벌려 불과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다리건설준비를 갖추고 다리기둥공사에 들어갔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다리건설과 관련한 협의회를 여러차례나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체없이 풀어주었으며 시, 군들에서도 다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이 대형화물자동차들과 자동부림적재기, 굴착기들을 비롯한 기계화수단들을 동원시켜주면서 다리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전투원들은 건설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다리터기초굴착공사를 맡은 운산군도로건설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기초굴착공사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려단에서는 이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모든 단위들이 다리기둥기초굴착공사를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려단장은 돌격대원들에게 건설공사의 속도와 함께 질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세멘트와 골재의 혼합비률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리상판콩크리트치기에서 시공참모들의 요구성을 높이게 하였다.

이렇게 려단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한달동안에 방대한 다리상판콩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려단전투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청천강반에 침수지우회도로를 련결하는 다리건설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였다.

특파기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자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전국각지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30돐이 되던 지난해 8월 3일, 각지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무한한 격정속에 뜻깊게 맞이했던 그날로부터 또 한해가 흘렀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주체73(1984)년 8월 3일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몸소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찾으시여 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이 부문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 그들모두를 장군님의 유훈을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로 가슴들먹이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의 창발성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다양한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식료일용공업성 일군들은 이 운동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늘 현지에 나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올해 1.2배이상 높아진 소비품생산계획을 상반년기간 146%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비할바없이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심장에 새기고 평양시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안의 당, 행정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자기 단위, 자기 부문이 앞장서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 평천구역, 만경대구역을 비롯한 구역, 군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모든 소비품생산자들이 뼈에 새기고 걸음걸음 어떻게 하면 질좋은 소비품을 더 잘 만들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겠는가 늘 마음쓰도록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림으로써 대중운동의 생활력과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였다. 지난 7월말에 진행된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는 시적으로 7 500여종에 6만 2천여점의 인민소비품이 출품되였다. 평안북도의 당, 행정일군들이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투쟁에 모든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이 떨쳐나서도록 경제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고 빈틈없는 조직사업, 째인 총화평가사업으로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함경북도안의 시, 군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직매점을 훌륭히 개건하는 사업과 새 제품개발, 질제고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눈에 띄는 혁신을 가져왔다. 도의 일군들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성과여부가 인민을 받드는 자기들의 자세와 립장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한 남포시의 구역, 군일군들도 늘 생산현장과 직매점에 나가 소비품생산과 판매정형을 료해하고 생산을 부단히 추동하여 소비품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흔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함경북도 길주군, 경성군, 남포시 와우도구역, 황해남도 장연군, 량강도 보천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 군소비품생산자들에 의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날이 갈수록 생활력과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시 대동강구역, 보통강구역, 평안남도 평성시,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을 비롯하여 많은 시, 구역, 군들에서 동가내작업반운영이 활성화되여 직매점에 내놓은 소비품들이 근로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지표로 당당히 이름떨치고 있다.

각지 시, 군, 구역직매점운영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추동하는 거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것은 올해에 이 부문 일군들과 직매점봉사자들이 이룩한 성과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력포구역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삭주군, 평안남도 개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포항구역, 량강도 혜산시, 강원도 원산시직매점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 군직매점들이 훌륭히 개건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리용생산반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긍정적모범으로 자기 단위의 생산을 책임적으로 선도해나가고있다.

오늘 모든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사회주의경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운동의 위력한 생활력을 더 높이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명홍숙

—평천구역직매점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함경남도에서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이악하고 박력있게 밀고나가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습니다.》

주체99(2010)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흥문화전시판에서 진행되고있는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함흥문화전시판의 드넓은 홀에 전시된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대중소비품들을 다양하고 맵시있게 만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 및 행정경제기관들과 지도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5년간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와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론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소비품생산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매 분기와 상반년, 하반년기간 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놓고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필수품직장과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비롯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가 5년전에 비하여 수백개나 더 늘어났으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이 훨씬 장성하고 그 질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공장, 기업소들과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함흥후방가족은하피복공장, 성천강은하피복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는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을 쓸모있고 맵시있게 질적으로 생산하고있다.

허천군, 장진군, 부전군을 비롯한 산골군들과 단천시, 금야군, 고원군, 함흥시 성천강구역, 회상구역, 흥덕구역, 사포구역을 비롯한 시, 군, 구역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하고 지방공업공장들의 생활필수품작업반과 가내작업반의 역할을 높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현지지도하신 5돐을 맞으며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드높은 열의, 불타는 맹세

인민의 참된 충복

두해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인민생활향상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차지하는 몫을 깊이 자각하고 조직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얼마전 청진시 신암구역가내작업반관리소에서는 자기 고장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리용하는 특색있는 학용품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빨래비누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우리들은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이런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여 일반화함으로써 인민의 사랑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겠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국장 리정옥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우리 대동강축전지공장의 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은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한가지 소비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실지로 좋아하고 덕을 보게 하는것이 당정책을 받드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올해에 생산기지를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30여종의 갖가지 전기용품, 가정용품들을 질좋게 만들어 구역직매점에 내놓았다.

우리는 소비품생산에서 커다란 앙양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대동강축전지공장 조립직장 작업반장 함원국

생산자,소비자의 립장에서

우리 신의주시직매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봉사방법과 봉사활동을 더욱 개선하는 한편 소비품생산을 직접 책임진 립장에서 질좋은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 직매점 리용생산반원들은 인민들이 좋아하는 소비품을 한가지라도 더 많이, 더 훌륭히 생산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여 직매점의 매대들을 우리가 생산한 소비품들로 차곡차곡 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완구들과 섬유제품들의 가지수를 늘임으로써 직매점을 더욱 흥성이게 하겠다.

신의주시직매점 리용생산반 반장 김혜영

주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길주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길주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지난해 3월 소비품생산현장들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군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일부 단위들에서 수요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소비품을 생산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다나니 일부 소비품들은 잘 팔리지 않아 생산자들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해당 단위의 확대재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는것이였다.

군일군들은 그길로 직매점에 나가 판매원들을 통하여 잘 팔리지 않는 소비품은 어떤것들이며 어느 단위에서 생산한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군의 책임일군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직매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꽉 채워놓아 주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웠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고경숙동무를 비롯한 직매점종업원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 석달남짓한 기간에 직매점을 훌륭하게 개건하고 자재와 제품창고도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매점종업원들의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직매점의 봉사자들이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늘 알아보고 제때에 생산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일군들은 수요와 공급간의 련계를 긴밀히 해주면서 류통액을 늘이고 판매가 이루어지는족족 자금류통이 빨리 실현되게 함으로써 확대재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가내작업반들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가내부업을 통한 수입액이 늘어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한 부양가족들의 열의도 높아졌다.

주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따르는 소비품들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질이 높아진것만큼 직매점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군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군일군들은 직매점을 잘 꾸려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련계를 긴밀히 해준데 있다고 이야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삭주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좋은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공장, 기업소들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지표들을 명백히 주고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군에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산과일들과 고사리를 비롯한 산나물들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파지와 파비닐 등 유휴자재들을 수집하기 위한 수매사업을 군중적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온 군에 인민소비품생산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군식료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초식품과 당과류생산을 다그치면서 여러가지 산과일과 산나물을 가지고 단물을 비롯한 음료와 산나물절임생산을 늘이고있다.

군어린이신발공장에서는 기본신발생산지표외에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축구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신들을 만들어 직매점에 내놓았으며 군가구공장에서는 가구제품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학생용책걸상들을 만들어 교육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군직매점리용생산반을 비롯한 소비품생산단위 생산자들도 장갑과 각종 방석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소비품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있다.

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가운데는 도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소비품들도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해에도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더 많은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우리 나라 남자축구팀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남자축구팀이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되고있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첫날 경기에서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남조선팀이 참가하고있다.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 전반전에서 실점당하였지만 후반전에 들어가 2, 3인련락과 측면돌파 등으로 득점기회를 마련하면서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해나갔다.

불굴의 정신력과 강의한 투지,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며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78분경 리혁철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강하게 차넣은 공이 그대로 상대팀 그물을 흔들어놓았다.

결정적인 득점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우리 선수들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기를 주도세밀하게 진행해나갔다.

우리 팀의 박현일선수가 경기시간 88분경 상대팀 문전앞에서 머리받기로 멋있는 득점장면을 펼쳐보였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팀이 2:1로 일본팀을 이긴 가운데 끝났다.

우리 나라 팀은 5일 중국팀과 두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나라 남, 녀축구선수들이 대회 첫날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드높은 체육열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였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성적은 다음과 같다.

성인급 남자단식

1위 최일(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급 녀자단식

1위 손신(중국)
2위 하락가(중국)

성인급 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로현성, 안지성(조선)

성인급 녀자복식

1위 김송이, 리명순(조선)
2위 김혜성, 리미경(조선)

21살미만 남자단식

1위 박은혁(조선)
2위 심은성(조선)

21살미만 녀자단식

1위 김송이(조선)
2위 차효심(조선)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였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례성강발전소 건설감독과 부원이였던 손광명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집단과 동지들의 추억속에 있기는 쉽지 않다. 사업과 생활의 갈피마다에서 동지들이 자주 부르게 되는 이름, 그는 어떤 사람이며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빛내여왔는가.

우리는 한 일군의 삶을 통하여 이 물음에 대답하려고 한다.

* *

어느 단위에나 집단의 각별한 신망과 사랑을 받는 성실한 인간이 있다.

례성강발전소 건설감독과 부원이였던 손광명동무가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지난 5월 30일, 손광명동무는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물길보수공사장에서 일부 구간의 옹벽기초콩크리트타입을 위해 암반검사를 하고있었다.

《이젠 그만하기요. 암반에 붙은 이끼가 뭐 그리 큰것두 아닌데.》

례성강발전소건설 청년돌격대 서흥대대 참모장 김철남동무의 목소리에 손광명동무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다됐습니다. 마지막이끼까지 깨끗이 긁어내야 맘이 편해 그럽니다.》

그가 긁어낸 바위우를 살피며 김철남동무는 입속으로 말했다.

(과연 책임성도 높다구야.)

그 순간 《비키라!》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김철남동무의 몸을 확 덮었다. 이미 쌓은 옹벽의 5m높이에서 뜻밖에 큰돌이 참모장의 잔등뒤로 떨어지는것을 발견한 손광명동무가 자기몸을 날려 그를 희생적으로 구원했던것이였다.

…

서흥대대 참모장의 무릎우에서 눈을 꼭 감고있는 손광명동무는 마치 잠을 자고있는듯싶었다.

(광명동무!)

목구멍으로 동지의 이름을 꿀꺽 삼키며 오열을 터치는 서흥대대 참모장과 돌격대원들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뒤늦게야 이 소식을 전해듣고 달려온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자는듯 누워있는 그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손광명동무는 어떤 사람이였는가.

《성실한 사람이였습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일했다는 교창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였다.

성실한 사람, 그는 구태여 우리앞에서 그 말의 해석을 달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알것이라고 했다.

우리와 만난 건설감독과 과장 장인석동무는 례성강청년1호발전소 언제건설때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손광명동무는 례성강발전소건설에서 제일 큰 공사인 1호발전소언제건설에 대한 감독사업을 맡고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손광명동무는 언제의 중심강토에 흔석이 쌓이는것을 보게 되였다.

《다시 파시오. 흔석을 넣으면 동뚝의 강도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다짐을 다시 하고 콩크리트를 쳐넣으시오.》

준절하게 말하는 그의 말에 돌격대원들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날 돌격대원들은 감독부원과 함께 밤깊도록 흔석을 다시 파내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이라고 말로만 외워온 자기들을 늦게나마 뉘우쳤다.

《량심앞에, 조국앞에 떳떳하려는 그 마음에 존경이 갔습니다. 사람이 조용한 편이였는데…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기사장 신동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감독부원은 자재, 설비, 시공에 이르는 공사전과정에 대한 루계대장을 정리하였는데 수자 하나,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거액의 국가자금이 하늘로 날아날수도 있다고 한다.

손광명동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언제 한번 실수를 몰랐다. 직무에 대한 성실성이 그에게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였던것이였다.

손광명동무는 발전소건설과정에 많은 착상도 하였다.

열린 물길에서 콩크리트옹벽과 흙물길시공방법을 비롯해서 그가 창안도입한 가치있는 건설공법들은 지금 발전소건설장에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

자기 직무에 성실한 사람, 이것이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린 손광명동무에 대한 첫번째 평가였다.

그런 그가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이야기를 남겼던가.

그는 이미 토산땅의 한 학생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였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토산군인민병원으로는 13살 난 한 화상환자가 실려왔다. 당시 군청년동맹위원회일군으로 사업하던 손광명동무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광철이라는 학생은 의식을 잃은채 생사기로에 놓여있었다. 손광명동무는 신뜻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사들에게 호소하였다.

《살이면 살, 피면 피를 다 바치겠습니다. 어서!》

그의 뒤를 이어 숱한 사람들이 소년을 위해 피와 살을 바쳤다. 손광명동무는 그후 70여일간이나 그 학생을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그 소행을 전하는 사진화첩에서 우리는 손광명동무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당시 학생의 담당의사였던 군인민병원 기술부원장 김용진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어린 환자를 찾아 매일같이 병원문을 열던 손광명동무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다고, 그는 정말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도 그것을 평범하게 여기는 그런 참된 인간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그는 발전소에서도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였다. 언제인가 함께 일하는 감독원의 가정이 뜻밖의 재난을 당하였을 때였다.

집에 들어온 손광명동무는 이불장문을 벌컥 열었다. 새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안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여보, 가져다주기요. 생활이 넉넉해지면 인츰 새 이불부터 마련합시다. 당신마음 섭섭치 않게!》

자기 집의 하나밖에 없는 새 이불인지라 퍽 아쉬웠지만 남을 위하는 남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손광명동무의 안해 윤영실녀성은 차곡차곡 포갠 새 이불을 남편의 손에 들려주었다. 집에 아껴두었던 여러 부엌세간들도 함께.

어찌 그뿐인가.

발전소의 한 종업원이 급병으로 앓을 때 80여리 먼길을 달려 귀한 약재를 구해온 이야기며 학부형회의에는 아버지가 가야 한다며 떼를 쓰는 딸을 안해에게 맡기고 출장간 감독원을 대신하여 그의 자식의 학부형회의에 참가하던 이야기,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음식들을 들고나와 밤낮으로 일하는 돌격대원들을 고무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남달리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집단의 두번째 평가였다.

손광명동무가 희생된 후 며칠이 지나도록 발전소 건설감독과 사람들은 그의 감독일지를 덮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는 말하고싶다. 집단과 동지들이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이 가장 값있는것인가에 대해.

조용한 사람이라 사업과 생활에선 크게 표나지 않는 사람, 허나 맡은 임무에는 무한히 성실하고 평시에 집단과 동지를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치는 그런 인간은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을 받는다.

손광명동무가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그는 비록 한창나이에 우리곁을 떠났지만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의 생은 동지들이 떠올리는 아름다운 추억과 더불어 영원하다. 이런 삶이 영생하는 삶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값있고 고귀한 삶이 아니랴.

본사기자 오은별

불안정의 시한탄을 안고있는 파쑈독재체제

동족을 허무니없이 걸고드는 괴뢰패당의 고약한 악습이 오늘처럼 무분별한 단계에 이른적은 일찌기 없었다.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전진앞에 당황망조한 괴뢰패당은 지금 허튼 모략여론들을 마구 내돌리며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특히 박근혜가 틀고앉아있는 청와대안방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각종 반공화국음모와 악선전의 발원지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집권자는 어느 한 외국대표단을 불러들인 자리에서 그 무슨 국제적인 제재가 그 누구의 《불안정을 증대시킬것》이라고 줴쳐댔는가 하면 미국의 한 언론파의 회견에서는 《불안정의 씨앗》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심히 걸고들었다. 이것은 흰것도 검다고 우겨대면서 저들의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만 지어내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비극은 남조선괴뢰들이 아직도 반공화국모략소동의 결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있다는데 있다.

모략과 날조에 이골이 난자들의 생업지는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괴뢰패당이 내돌리는 그 무슨 《체제불안정》설은 상대를 너무도 모르는 천치바보들의 허황한 망상의 산물이다.

자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백승의 위력을 떨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체제불안정》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다.

체제불안정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남조선의 반인민적인 파쑈통치제도는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멸망에로 줄달음치는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는 썩은 제도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는 괴뢰들이 겪고있는 항시적인 정치적불안과 통치위기의 주되는 요인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정책, 대조선지배전략에 의해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위기의 력사를 이어왔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식민지괴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닥치는대로 제거하면서 불법무법의 《단선단정》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으며 결국 4.3인민봉기와 같은 대중적인 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에 대한 미국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으로 온 제주도가 피로 물들었다.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파쑈폭압통치에 항거하여 남조선인민들이 4.19인민봉기에 떨쳐나서자 극도의 위구심에 사로잡혀 박정희군사깡패를 내몰아 류혈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로 하여 4.19인민봉기의 열매는 무참히 짓밟히고 악명높은 군사독재체제가 수립되였다. 《유신》독재자가 미국의 뒤받침밑에 파쑈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므로써 남조선에서 민주세력과 매국세력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극도에 달하고 남조선은 스산한 파쑈의 란무장, 인권동토대로 전락되였다.

미국이 쓸모없게 된 《유신》독재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체제를 구축한 이후에도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항쟁은 계속되였으며 이것은 괴뢰통치배들을 극도의 위기에로 몰아넣었다. 남조선에서 《문민정권》의 출현으로 군부독재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빛갈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다.

미국은 교활하게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주구들을 갈아대면서 남조선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를 좌우지하여왔다. 현 괴뢰정권하에서 빚어지고있는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권력다툼, 그로 인한 사회적혼란도 남조선을 틀어쥐고 저들의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배후조종과 음모, 계획에 따른것이다. 《위킬릭스》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이 괴뢰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감시명단을 작성해놓고 매 인물에 대한 판단과 선별놀음, 그에 기초한 막후공작을 벌린 사실을 공개한것은 괴뢰정치인들을 손아귀에 거머쥔 실권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강도가 뛰여든 집안이 조용할리 만무하다. 괴뢰들이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였지만 그로 하여 초래된것은 지속적인 정국혼란과 함께 반역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규탄과 배격, 날로 더해가는 《정권》위기뿐이다.

남조선은 인민을 등진 괴뢰통치배들의 반역정치, 폭압통치로 하여 위기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사회이다.

지금 현 괴뢰통치배들은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며 온 남조선땅을 파쑈독재가 살판치는 인권유린의 란무장, 민주의 페허지대로 전락시키고있다. 정보모략기관들의 민간인사찰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최루액사용, 파쑈악법을 동원한 《종북》세력척결소동 등 군부독재시기에나 볼수 있었던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근로인민들이 도저히 마음놓고 살수 없고 그로 인한 반《정부》투쟁의 불길이 도처에서 치솟고있는것이 현 남조선사회의 실태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통령》선거자금사건, 정윤회국정개입사건, 성완종사건 등 괴뢰집권세력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한 정치적혼란과 갈등은 절정에 달하고 사회는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집권자의 지지률이라는것은 땅바닥에 나딩굴고 반《정부》삐라들이 매일같이 뿌려지고있다. 괴뢰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하여 빚어진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온 남조선을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고 그에 분노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시위투쟁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지어 괴뢰집권층인물들까지 박근혜의 독단과 전횡에 반기를 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현 괴뢰집권자가 임기 3년도 못되여 말기증세를 보이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공연한것이 아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괴뢰들이 자주로 존엄높고 신군으로 위력한 우리 공화국을 제아무리 악의에 차서 헐뜯어도 그것은 공정한 여론의 조소와 규탄만을 자아낼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체제불안정》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함부로 헐뜯는것은 종국적멸망을 눈앞에 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친미사대로 망조가 들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고있으며 파쑈폭압으로 제눈을 찌르는 괴뢰보수패당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제코도 못 씻는 주제에 그 누구의 《불안정》이니 뭐니 하고 어이없이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를 넘겨다볼 경황이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의 시한탄을 안고 무덤길을 재촉하고있는것은 괴뢰들자신이기때문이다.

박 철 준

공동행사파탄을 노린 괴이한 잡소리

지금 남조선괴뢰당국이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공동행사에 대해 매우 온당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괴뢰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의 민간단체가 우리와 접촉하는것을 승인해주는척 하면서 통일부대변인을 내세워 《정치적행사는 허용하기 곤난하다.》는 등의 속이 뒤틀린 소리를 내뱉고있는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의 자주통일대행진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환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칠것을 밝히였으며 여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해내외의 각계층 대표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서로 접촉을 가지고 통일행사에 대해 론의하는것은 조국해방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싶어하는 온 겨레의 절절한 소망으로 보나 민족단합의 시대적요구로 보나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비정치화》따위를 운운하며 그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이것은 공동행사를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괴뢰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기념일과 관련한 공동행사도 《정치성배제》니 뭐니 하며 파탄시켰다. 그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그런 수법에 매달려 행사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은 그저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8.15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적경사의 날이다. 이날은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민족재생의 날로 깊이 새겨져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하려는 공동행사는 응당 우리 겨레가 조국해방의 력사적의의를 깊이 되새기며 자주통일의 굳센 의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계기로 되여야 한다.

그런데 행사가 《비정치화》되여야 한다는것은 무슨 도깨비같은 수작인가. 남조선괴뢰들의 《비정치화》타령은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한갖 궤변으로서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있는 8.15공동행사를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파탄시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괴뢰패당의 망동은 8.15공동행사를 성대히 진행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괴뢰들은 지금 입만 벌리면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떠들고있다. 그러나 보다싶이 괴뢰패당은 북과 남의 동포들이 서로 마주앉아 공동행사를 열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을 두려워하면서 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있다. 이런 걸과 속이 다른 정치모략군들의 《대화》나발을 과연 누가 곧이들겠는가. 괴뢰들은 《비정치화》니 뭐니 하는 괴이한 잡소리를 치며 8.15공동행사를 가로막아나섬으로써 저들이 운운하는 《대화》라는것이 한갖 기만이며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하는 동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쯤 되면 남조선괴뢰당국이 《대화》와 대결의 상반되는 두 극단을 오가며 《1인 2역》의 광대극을 연출하는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가려볼수 있다. 괴뢰들의 골수에는 오직 동족대결야망, 북침흉계만 꽉 들어차있다. 바로 그것이 8.15공동행사의 성과적개최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고조되는것을 악랄하게 저해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당국은 오산하고있다.

6.15의 기치높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억센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는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애국열의에 떠받들려 성대히 진행되게 될것이다.

조 남 수

굴종외교가 가져다준 치욕과 망신

비굴한 저자세로 대일굴종외교에 나섰던 괴뢰들이 일본으로부터 무시와 놀림만 받고있다. 친일사대외교의 궤친 똑박을 차고 수치와 모멸의 수렁창을 방황하고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가련한 몰골을 보며 사람들은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교활한 일본에 염통을 뽑히면서도 《관계개선》의 비린청을 돋구는 괴뢰들의 어리석은 추태가 파연 어떤 사태에로 이어지고있는가.

최근 일본의 한 대기업체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당시의 강제로동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공식 사과하였다. 그것도 대표단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잘못을 빌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언론들은 제2차 세계대전종결 70년을 계기로 과거사문제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력사적인 사과》라고 선전하였다. 과거의 침략전쟁범죄에 대해 일본이 반성하고있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정치난쟁이 일본의 아첨일뿐이다.

일본이 자기의 침략전쟁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면서도 남조선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로골적으로 거부하고있는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일본《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등 청구권문제는 모두 해결되였다.》는 내용의 파렴치한 공동림장문까지 이미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 세계면전에서 대일굴종외교로 하여 스스로 들쓴 치욕이다.

괴뢰당국이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의 과거범죄와 재침책동을 묵인하면서 어떻게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보기로 하자.

올해벽두부터 《새로운 출발》이니 뭐니 하며 일본에 《관계개선》의 추파를 던진 괴뢰들은 최근 그 무슨 《력사문제와 안보문제의 분리대응》과 《협력촉진》을 광고하며 몇년동안 중단되였던 일본과의 외교, 군사, 경제 등 분야별회담들을 모두 재개하였고 군사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얼마전부터는 일본반동들과 우리 공화국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정식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의 주최로 진행된 남조선일본《국교정상화 50주년행사》라는데 코를 들이민 괴뢰집권자는 올해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원년》이 될것이라느니,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니 하며 어색하게 아양을 떨었다.

이것을 두고 내외여론들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이 《외교적고립》에서 벗어나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비굴한 처사앞에 배짱이 생긴 일본반동들은 날로 더욱 고자세를 취하면서 제 리속을 챙기고있다. 그것은 최근 일본이 남조선을 얼려먹으면서 과거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삐젓이 등록한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괴뢰들은 일본당국이 근대산업시설이라는 명분밑에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하자 《성공하도록 협력》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대가로 강제징용사실을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리고는 일본이 《합의내용을 잘 리행할것으로 기대》한다는 얼빠진 나발을 불어댔다. 하지만 교활한 일본당국은 세계문화유산등록이 결정되자마자 저들이 한 말까지 다 뒤집고 강제징용사실을 한사코 부정해나섰다. 일본의 배신으로 뒤통수를 되게 얻어맞은 괴뢰들이 《외교적신의》니 뭐니 하며 불부은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본장을 다 본 일본이 주구들의 청을 들어줄리 만무하였다.

사대외교의 쪽박은 깨지고 괴뢰들은 완전히 바보취급을 당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일본에 받기우고 미국에 치우며 궁지에 몰린 굴종외교》라고 야유하고있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있다. 며칠전 괴뢰외교부는 일본이 201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항의》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또다시 비굴한 추태를 부리였다. 《과거사나 력사문제에는 엄중대응하지만 안보문제 등에서는 협력》해나가는것이 《대일외교의 기본정책》이며 이런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굴종적자세를 또다시 드러낸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갈수록 오만해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미국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정치난쟁이에 불과한 일본이 괴뢰들앞에서 거인행세를 하며 마구 발길질을 하고있다. 이야말로 민족적수치이다.

사대와 굴종으로 차례질것은 이렇듯 치욕과 망신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가 남긴 진리이고 현실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불법사찰행위를 립증해준 자살사건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이 해외로부터 사들인 감시용해킹프로그람이 민간인불법사찰을 노린것이라는 론박할수 없는 사실자료들이 계속 폭로되고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여론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괴뢰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람 담당자가 얼마전 어느 한 야산에 올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것이다. 그로 말하면 괴뢰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람을 직접 구입하고 사용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소속된 괴뢰정보원 3차장산하 과학정보국은 도청과 해킹을 주되는 업무로 하는 부서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정보원측이 저들의 《결백성》을 립증하기 위해 해킹관련자료들을 공개하겠다는 립장을 밝힌 직후 갑자기 자료들의 일부를 삭제해버린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정보원의 불법사찰은 없었다. 삭제된 내용들은 대테로, 대북공작관련자료들이다.》라고 썼다.

문제는 그가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무엇때문에 관련자료들을 삭제했으며 지어 자살까지 했는가 하는것이다. 그의 죽음을 놓고 남조선언론들은 납득할수 없는 자살이다, 오히려 불법사찰의혹만 더해주고있다고 평하였다. 그럴수밖에 없다.

알려진데 의하면 그는 자살하기 직전 괴뢰정보원내에서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하다면 그는 무슨 리유로 수사를 받았는가.

며칠전 남조선의 《CBS》방송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방송은 자살한 정보원직원이 동료에게 정보원이 불법해킹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전부 직원 개인에게 돌린다고 불만을 토로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방송은 자살한 정보원직원의 유서와 해킹행위에 관계한 어느 한 단체대표의 발언은 자살자가 정보원상층부로부터 불법해킹을 강요받았음을 시사해주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자살한 정보원직원이 상전의 압력에 따라 불법해킹을 했으며 그것이 탄로되여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들씌워지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정보원직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놀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해킹을 조직하고 지휘한 괴뢰정보원이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 꼬리가 드러난 그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술책이였다. 이로부터 극도의 배신감과 울분에 사로잡힌 그는 번민속에 모대기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되였던것이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술한병을 앉은자리에서 다 마신 사실은 울분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정보원직원이 자살하기 전에 해킹관련자료들을 삭제한 사실을 놓고서도 남조선언론들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은 상전의 묵인, 방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한다고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불법사찰에 종사해온 그가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자 증거인멸을 위한 자료삭제작업에 내몰리웠으며 그로 하여 심한 정신적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고민끝에 자살하였을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 원내대변인은 삭제된 자료가 《대북공작기밀》에 관한것이라면 그런 기밀자료를 상전의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옷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당대표는 정보원내부의 그 무엇이 그를 극단적선택에로 몰고간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의 돌발적인 죽음은 정보원의 불법해킹에 대한 의혹을 더욱 품게 한다고 말하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은 괴뢰정보원이 해외로부터 해킹프로그람을 사들여 정치적반대파들과 반《정부》세력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면서 집권자의 독재통치를 정보활동으로 적극 뒤받침해온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폭로되자 불법행위를 직접 시행한 직원 한사람을 희생시켜 저들은 부정추문사건의 늪에서 헤여나려고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모략의 능수들인 괴뢰보수패당은 뻔한 사실앞에서도 오그랑수를 쓰며 어떻게 하나 이번 불법해킹사건으로 인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괴뢰정보원직원자살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죽음이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는 야당의 공세때문인듯이 묘사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기에 급급하였다. 괴뢰정보원것들은 뻔뻔스럽게도 《삭제된 자료는 되살릴수 있다.》느니, 《현장조사》니 뭐니 하며 오히려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그들의 불안한 심리는 결코 감출수 없다. 며칠전 괴뢰정보원직원들이 저들의 《청렴》을 광고하며 집단적으로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다 어쩐다 하고 분주탕을 피운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남조선언론들은 지금껏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사회적여론에 도전해나선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필경 이번 사건을 무마해버리기 위한 정보원상층부의 계책이 깔려있으며 그 배경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야당을 비롯하여 남조선각계는 정보원이 삭제된 자료를 되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일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집권세력이 꼬리자르기식의 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특검 등을 통해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진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괴뢰패당이 불법사찰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고있지만 정보원직원자살사건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괴뢰정보원이야말로 모략과 인권유린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며 독재통치를 뒤받침하는 악의 소굴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재미동포들과 미국평화운동가들이 미국에서 시위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정전협정체결 6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재미동포들과 미국평화운동가들이 7월 27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앞에서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탄저균실험을 규탄하는 시위투쟁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발언들을 통해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적대관계청산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은 미국민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평화협정 체결하여 조선반도평화 실현하자!》,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대조선적대시정책 산물 탄저균실험 규탄한다!》, 《탄저균반입 진실을 밝히고 탄저균실험 영구히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조선중앙통신】

해외동포들 진상규명을 《세월》호참사 위한 투쟁 전개

발이 닳도록 뛰는것만큼 덕을 본다

덕천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덕천시가 메기양어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 시안의 수만세대에 메기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더 높은 목표를 걸고 힘차게 내밀고있다. 이것은 당의 양어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시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라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다. 애써 마련한 양어못들이 실지 은을 내게 하자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시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양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양어에서 어종선택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메기가 주목되였다.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비육속도가 빠르고 먹이를 특별히 가리지 않았던것이였다. 이런 물고기로 양어를 해야 당해에 시안의 주민들에게 펄펄 뛰는 생선을 공급할수 있었다.

새끼메기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것과 함께 더운 물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벌어졌다.

온천이 없는 조건에서 메기생육에 필요한 20~30℃의 더운물조건을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양어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할 우리 당정책의 하나이라는것을 자각한 일군들은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돌로 쌓은 양어못안벽이 되약볕에 달아오르면서 물온도가 최고 32℃까지 높아지군 했다는것, 따라서 5월 중순경부터 물높이를 40~50㎝로 보장해주면 못에 넣어준 새끼메기의 생육에 유리한 물온도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는 사실, 때에 따라 달라지는 대동강수위가 양어못의 물높이변화에 주는 영향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메기양어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이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물이 많이 든다면 여러차례의 대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양어못들의 바닥이 대동강수위보다 훨씬 낮아져 물높이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물막이뚝과 물길이 새로 생겨 양어못들에 언제든지 자연흐름식으로 대동강물을 끌어들일수 있게 되였다. 종어사업소에서도 불가능하다던 새끼메기들의 사름률을 높여 해당 단위들에 계획된 마리수를 책임적으로 공급해주었다. 결과 메기양어를 시작부터 신심있게 내밀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일군들은 자연먹이를 가지고 물고기먹이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실천해나갔다. 그리 크지 않은 양어못에서 해마다 3t이상의 메기를 길러 덕을 보고있는 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이에 따라 주민세대들의 생활오수, 집짐승배설물과 진거름 등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였다. 그리하여 새끼메기를 양어못에 넣어준 5월 중순부터 실지령이와 싸그쟁이 등의 여러가지 자연먹이가 계절별로 메기양어에 적극 리용되였다.

일군들은 광범한 군중이 메기양어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당의 양어정책의 진수와 그 요구, 시의 양어발전에서 군중양어가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해설해주었다. 특히 지난해 자연먹이를 가지고 메기양어에서 성과를 거둔 종어사업소와 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 경험자료들을 안받침하여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양어못들이 대동강기슭의 한 지역에 집중되여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단위별 메기기르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결과는 좋았다.

시청소년체육학교와 시상업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기업소들이 저저마다 메기양어에 뛰여들었다. 말없는 경쟁속에 메기들의 증체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협동농장들에서도 메기기르기열풍이 세차게 일어 시의 양어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실리가 나면 누구나 한번 해볼 결심을 하게 되는 법이다.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일군들은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더 높은 메기양어성과를 안고 들어서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양어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발이 닳도록 뛰면 어디서나 그 덕을 보게 된다.

본사기자 김 성 일

‖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 ‖

◎ 신흥산칠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

함흥시에 가면 곳곳에 꾸려진 샘물공급소를 볼수 있다.

얼마전 취재길에 사포구역을 지나던 우리는 어느 한 샘물공급소에서 밝은 인상으로 샘물을 받아가며 주고받는 로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게 되였다.

《물맛이 정말 좋지요?》

《예. 우리 집식구들은 이 샘물을 하루만 못 마셔도 입맛을 잃는답니다. 칠감공장에서 정말 큰일을 했수다.》

알고보니 이 샘물공급소는 지난해 8월에 일떠세운것이였다. 우리의 주목을 끈것은 이 샘물공급소를 신흥산칠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떠세웠다는 사실이였다. 우리는 칠감생산과 인연이 없는 일을 스스로 찾아한 그들을 만나보고싶어 공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공장일군인 전재식동무는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그것이 무슨 큰일인가고,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시기 이곳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물이 바르고 수질도 좋지 못했다. 그리하여 공장주변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다른 곳에 꾸려진 샘물공급소에서 샘물을 길어다 먹는물로 리용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어느날 공장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자기들의 집가까이에도 샘물공급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지배인 류경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매일 출퇴근길에서 공장주변의 주민들이 멀리까지 가서 샘물을 길어오는것을 보아온 그들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볼수록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칠감생산과 샘물공급소를 일떠세우는 일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생산계획수행과 같이 받아들였다.

즉시 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샘물공급소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공사량은 실로 방대했다.

수km 떨어진 성천강구역에 있는 샘물원천지로부터 관을 묻어와야 했고 샘물공급소건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멘트와 목재, 공사에 쓰이는 관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해야 했다. 거기에다 공사에 동원될 로력도 그 어디서 대주는것이 아니였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면서 샘물공급소를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일군들은 이 공사를 당에서 자기들에게 직접 맡겨준 영예로운 전투임무로 간직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출근전이나 퇴근후, 생산의 여가시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파비닐수집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그렇게 모은 파비닐을 싣고 비닐관을 생산하는 시안의 여러 공장들을 찾아갔다.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신흥산칠감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모습에 감동된 그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떨쳐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공사에 필요한 수천m의 비닐관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이어 샘물관을 늘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였다.

제일 긴장한것이 로력이였다. 그렇다고 생산을 멈추고 공사를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에는 낮대로 생산을 하면서 새벽과 저녁시간에 공사를 하였다. 칠감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시간을 쪼개가며 벌리는 공사가 다름아닌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알게 된 주변지역의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시의 책임일군도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후방물자를 안겨주며 이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공장일군들은 공사가 빨리 진척되는데 맞게 자재보장을 계속 따라세웠다. 그들이 정평쟁목생산사업소에 달려가 채벌공들과 침식을 함께 하였고 또 기계톱을 직접 손에 쥐고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한㎥한㎥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였다. 이런 투쟁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함흥중등학원에도 맑은 샘물이 넘쳐나게 되였으며 공장주변에 샘물공급소가 아담하게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 그 길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신흥산칠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일념이다.

리 영 민

핵광신자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인류의 이러한 지향을 우롱, 모독하는 서푼짜리 유치한 광대극을 계속 연출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고 세계를 기만하고있는 미국이 또 다른 기만선전놀음을 벌리고있다. 올해 여름안으로 《맨하탄계획》판련시설들을 국립력사공원으로 정식 지정한다고 부산을 피우고있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미국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품고 극비밀리에 추진해온 원자탄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뉴멕시코주, 워싱톤주, 테네시주에 세워진 원자탄연구소 및 플루토니움제조소들은 미국의 핵범죄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산증거물들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핵무기는 이곳에서 만든것이다.

인류와 력사앞에 씻을수 없는 엄청난 대량살륙범죄를 감행하고서도 그것을 《평화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광고하는것은 세계최악의 핵전쟁광신자들만이 할수 있는 강도적궤변이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며 출현한 현 미행정부가 또다시 기만적인 놀음으로 국제사회를 심히 우롱, 모독하고있는것은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다.

원래 과학은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지구상에 축적되여있는 미제의 방대한 량의 핵무기는 인류가 창조한 과학기술의 귀중한 성과로 인류의 복리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재부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수단을 만들어낸 핵전쟁광신자들의 죄악을 고발해주고있다. 핵기술을 대량살륙무기를 만드는데 리용하고 인류에게 최초의 핵참화를 들씌운 장본인인 미국은 마땅히 수치를 느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범죄적인 대학살만행을 저지르는데 리용한 원자탄개발시설들을 큰 자랑거리나 되는것처럼 국립력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고있으니 정의와 량심에 대한 이보다 더한 로골적인 도전, 우롱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문제는 원자탄개발시설들을 국립력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떠는 미국이 그 어느때보다도 핵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는데 있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은 요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의 필요성을 자주 렬거하고있다. 최근 미국방성 부장관은 핵무력을 시급히 현대화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이를 위하여 매해 180억US$가 필요하다고 줴쳤다. 미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은 우리 나라와 로씨야 등의 대미핵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3대전략핵무력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는 《평화》를 부르짖고 뒤에서는 전쟁을 추구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술책이다.

돌이켜보면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선행자들과 색다른 정책을 실시할것처럼 놀아댔지만 그 막뒤에서 어떻게 해서나 핵우세를 유지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해왔다.

오바마정권은 핵무기고현대화에 더욱 발광하고있다. 군축을 떠드는 막뒤에서 핵무기개발과 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있다. 림계전핵시험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것은 오바마정권이야말로 핵무기만능론에 환장한자들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드러내보여주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구상과 마찬가지로 국립력사공원지정놀음도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서푼짜리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이 핵전쟁을 추구하면서도 기만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21세기 저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있는 미국의 현 집권세력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이 지역에서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누르고 그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면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이룰수 있다고 미호전세력들은 타산하고있다.

미국은 이 전략을 실현하는데서 핵무기의 절대적우세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그런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이라는 기만적인 간판의 막뒤에서 핵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의 책동때문에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핵위협공갈정책이 파산에 직면하여 맥을 추지 못하게 된데 위구를 느낀 핵광신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원자탄개발시설들을 력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은 이런 사정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이런 너절하고 유치한 놀음을 통해 저들이 진정으로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는것처럼 세계를 기만하여 다른 나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핵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데 있다.

미국은 그러한 침략적목적을 우리를 걸고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부장관은 미국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하지만 북조선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처하여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억제력》은 장래에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에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유지되여야 할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미국이 우리때문에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처럼 떠들고있는것도 황당무계하지만 핵광신자들이 《강력한 핵억제력유지》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더욱 파렴치하다.

인류의 머리우에 핵무기를 들씌운 전적을 가지고있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억제력》을 떠드는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 있어서 핵무기는 전쟁억제력이 아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것자체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였지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였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오늘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핵공갈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저들의 패배를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으로 만회해보려고 여러번 시도하였다. 랭전종식후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으나 그것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수십년간의 조미대결과정에 우리가 절감한것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절대로 끝장낼수 없으며 비핵화도 한갖 환상으로 남아있게 되리라는것이였다.

력사의 교훈은 자위적핵억제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핵참화가 일어나게 된다는것이다.

우리는 강권에 기초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통해서 핵몽둥이를 휘두르는 강도와는 오직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를 더더욱 굳히게 된다.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질 때 평화를 지킬수 있다.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적대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우리는 미국이 그 어떤 광대극을 연출한다 해도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을것이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할것이다.

리 현 도

외국의 벗들이 열렬히 칭송

세기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강철의 령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 단장 하마드 압부드 알 사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이고 령활무쌍한 전략전술에 따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단장 예브게니 랴헨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을 참관하고 조선인민이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어떻게 꺾어놓았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전쟁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주체적이며 탁월한 군사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의 영웅적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침략자들과의 결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미제는 기고만장하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승리는 영원할것이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 쑤바쉬 까지 쉬레스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전쟁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이였다.

조선전쟁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떠선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세기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단장 쌩누안 싸이냐탓은 감상록에 이렇게 썼다.

참관을 통하여 조선전쟁에서 발휘된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이 거둔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출판보도물들

우리 나라를 소개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이 7월 13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신문 《쁘라우다 쁘리모리야》와 데웨-로쓰통신, 로씨야련방공산당 인터네트홈페지는 신문 《브레먀 베레본 + TV》 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평양시전경사진,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전하였다.

신문, 통신,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조선은 기적의 나라》, 《훌륭한것은 어린이들에게》, 《조선은 돌진하고있다》라는 제목의 편집물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와 봉쇄속에서도 활기에 넘쳐 미래를 향하여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돌려지고있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한다

방글라데슈에서 시위 진행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반미시위가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의 주최로 얼마전 방글라데슈 보리살에서 진행되였다.

시위에는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성원들과 보리살지역 로동자, 농민들, 10여개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시위에 앞서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통일이 조선민족의 념원대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되자면 미국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에 박수로 호응하였다.

이어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미싸일전개책동을 반대한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신형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중지하라!》라는 프랑카드들을 들고 반미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벨라루씨와 스위스에서는 경축모임이, 도이췰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업적토론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통일단결과 대중적애국주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인민의 위훈은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수호의 송가로 력사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오늘 조선은 진보적인민들에게 제국주의와 어떻게 맞서싸워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용감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천출명장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세계가 조선인민이 거둔 력사적인 승리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이 승리는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진보적인민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김일성**주석을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수령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김일성**동지께서는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령활한 전략전술로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렬처절한 전쟁시기에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여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청년소조 책임자는 토론회를 통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데 대하여서와 조선전쟁의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도발자도 단때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확언하였다.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뚜레병영 제1특공대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조선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린데 대하여 렬거하고 반미대결에서의 련전련승과 더불어 조선의 7.27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레로투쟁을 강화할 립장 천명

인도네시아대통령 죠꼬 위도도가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테로와의 투쟁을 강화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테로반대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진 해당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테로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들을 제정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반꾸바봉쇄조치철회를 요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최근 반꾸바봉쇄조치를 철회할것을 현 행정부에 요구하였다.

신문은 당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실패로 락인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경제봉쇄를 하루빨리 걷어치우고 관따나모미해군기지를 꾸바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일본이 아시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있다고 주장

스위스의 한 국제문제전문가가 7월 27일 일본신문 《재팬타임스》에 글을 발표하여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추진하는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는 글에서 최근 일본당국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언급하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평하였다.

그는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아시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정객들과 각료들의 국수주의와 《력사수정주의》는 극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반정부시위

‖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7월 28일 쌍무관계를 발전시킬데 관한 여러건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인도네시아대통령의 싱가포르방문과정에 채택되였다.

이에 앞서 27일 로씨야와 슬로베니아는 과학, 문화, 체육, 보건 등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수리아에서 가스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7월 27일 이 나라 원유 및 광물자원상은 시추와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부지역에 건설하고있는 가스공장을 하루빨리 완공함으로써 하루 가스생산량을 320만㎥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정부가 과뗑주의 한 학교에 첫 원격강의실을 내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원격교육방법을 도입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나라의 교육수준이 한계단 오를것이라고 한다.

얼마전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격화되는 군사적대결

진적되지 못하는 중동평화과정

오늘의 세계

중동평화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중동평화실현은 팔레스티나문제의 해결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팔레스티나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곧 독립국가창건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고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는것은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위업으로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민의 독립국가창건의지를 꺾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이다.

최근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1065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것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를 영구강점하려는 기도의 발로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만도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꾸드스에서 유태인살림집건설을 그 전해에 비해 40%나 증가시켰다.

꾸드스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이스라엘의 강도적주장이다. 이스라엘수상은 올해의 선거에서도 팔레스티나독립국가불인정과 유태인정착촌추가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하기에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수상의 재선을 두고 중동평화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고있다고 평하였다.

이것을 립증이나 하듯이 네타냐후는 재선되자마자 유태인정착촌확장과 관련한 계획들을 련이어 강행추진하고있다. 지난 4월에도 동부꾸드스에 77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은 살림집은 물론 저들의 강점을 영구화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들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획책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으로 중동지역에서 약 5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티나피난민이 산생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물위기 등 생활상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다. 이에 대해 팔레스티나수상은 물자원의 대부분이 오염된것으로 하여 물위기가 심각해지고있으며 특히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유태인정착촌들에서의 대량적인 물소비가 주민들의 물공급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은 국제사회의 응당한 지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중동나라들은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단죄규탄하면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국제공동체가 반이스라엘적인 외교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처사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유태국가》가 태여나도록 적극 뒤받침한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싸고돌고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처사를 못마땅한것으로 묘사하면서 《평화중재자》나 되는듯이 놀아대지만 뒤돌아앉아서는 극구 비호두둔해주는것이 미국이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얼마전에 서명한 무역법안의 내용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령토》에서 실시되고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코트와 권리박탈, 제재》를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의 조치들을 미국이 반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유태국가》건립을 선포한지 10분만에 이 《유태국가》를 승인한다고 선포하여 유태복고주의를 부활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미국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은 중동평화의 파괴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로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이 날로 심화되고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이란핵협상타결이후 표면화되였다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회견에서 로씨야외무상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2009년 쁘라하에서 이란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구태여 유럽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이란핵협상이 성과적으로 타결된것만큼 로씨야는 미국측으로부터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기다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2009년 4월 쁘라하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중지되지 않을것이지만 그러한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게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만일 오바마의 론리대로라면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된 지금에 와서 미국이 떠들던 《위협》은 사라진것이 분명하며 이로부터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절박성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응당 중지되여야 한다.

하지만 기만과 말바꾸기의 능수인 미국은 언제 그랬던가싶이 마구 우겨대고있다. 지난 7월 미국무성 관계자는 이란핵협상이 타결되였다고 하여 이란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싸일을 보유하고있으므로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나토대변인도 이란핵문제해결이 이란으로부터의 《미싸일위협》을 해소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유럽대서양지역내의 모든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뻐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미국의 이러한 몰렴치한 태도에 로씨야가 강력히 반발해나오고있다.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와 관련한 모든 전략은 시초부터 허위에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주도의 나토는 로씨야의 핵잠재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 《위협》설을 들고나온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배비책동의 목적이 철두철미 자국을 공격하는데 있다는 로씨야의 주장은 명백히 옳은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미국은 2020년까지 50척에 가까운 군함들을 현대화하여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리용하려고 한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로씨야가 이에 강력한 군사적 강경대응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륙해공군무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씨야는 짧은 기간안에 크림지역에 《Ty-22M3》초음속폭격기를 배비하여 항공부대의 공격력을 강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초음속폭격기가 가당을수 있는 거리는 흑해수역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로씨야국방성은 앞으로 임의의 목표물을 타격할수 있는 미싸일들과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의 대수가 증가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이 나라 해군총사령관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말까지 10척의 전투함선들과 40척이상의 보급선들이 해군에 납입된다고 한다. 현재 로씨야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10대이상의 직승기와 약 450명의 보병을 실어나를수 있는 상륙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현재 로씨야는 1990년대에 중지했던 신형무기개발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군사연습도 맹렬히 벌리고있다. 지난 7월 중순 크림에서는 각종 훈련들이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에서 직승기승조원들은 각이한 공중 및 지상목표들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련마하였으며 로케트포로 가상적을 소멸하였다. 동시에 항공대는 대공미싸일련대와 함께 가상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로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은 불가피하며 군비경쟁의 도수는 높아질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평가이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미국의 위협에 대한 강경립장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7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무장관의 위협적인 망발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국무장관이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군사적행동을 취할것이라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망발은 어리석은 위협에 불과하며 이란인민의 확고한 의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란인민이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고수해온데 대해 언급하고 성명은 미국관리들이 낡은 습관을 버리고 위협과 제재에 대한 망발들을 그만두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고위성직자 카젬 쎄디키가 7월 24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과거죄행을 잊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두고 일부 사람들속에서 적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행을 망각하고 이슬람교의 철천지원쑤들의 오만한 본성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고 경고하였다.

자기 나라는 이슬람교도들과 이슬람교나라들사이에 분렬을 조장하는 미국의 정책들을 배격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무력 총지휘참모부 부참모장이 7월 24일 한 발언에서 적들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현대적인 미싸일을 비롯한 방위수단들을 갖춘 이란무장력이 그 어떤 침략에도 맞설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은 오만무례한 렬강들의 횡포한 위협에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관리들이 이란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그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군사기지들에 접근하고 방위력을 약화시키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12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